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이사장 박삼구

최근 들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8월 정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대의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여 발표한 바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말로만 무성했던 10대 성장동력은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선정한 134개 미래 유망기술 및 품목을 10대 산업군으로 분류함으로써 드디어 일단락 되었다.

그런데 이번 10대 성장동력 추진은 몇 가지 측면에서 과거의 성장전략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우선 과거에는 노동이나 자본 등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을 통한 생산량 증대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기술혁신 주도형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인력 양성에 주력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이루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를 10대 성장동력의 추진주체로 참여시켜 지역의 균형발전과 차세대 성장동력 달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 현재 6개 광역단체에 조성된 테크노파크를 내년까지 13개로 확대하여 이를 R&D 거점으로 삼고, 국가 R&D예산(2004년도)의 30%를 지방에 배정하는 등의 정부 후속방침이 이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성장동력의 추진에는 기술별 R&D를 맡은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긴밀한 호흡이 성패를 가늠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도 이번 10대 성장동력에는 중소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인지 많은 중소기업들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약 290만개로서 전체 사업체수의 99.8%, 총 고용의 85.6%('01년말 기준, 광공업통계)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국민경제적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수출 또한 전체의 45.4%('03년 9월 기준)를 차지할 만큼 우리 수출과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유와 자율의 원천이자 혁신의 주체인 중소기업은 그동안 국가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성장동력으로서, 그리고 경제활력의 원천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기술혁신을 선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틈새시장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우리 수출의 첨병 역할을, 그리고 고용창출과 중산층 육성의 원천으로서, 기술혁신과 지식정보화의 첨병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경제의 근간으로서 그리고 지식정보경제에 있어 value-chain의 시작점으로서의 중소기업이 이번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로드맵에서 그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1995년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 이후 8년간 1만달러 장벽에 봉착해 있으며, 산업경쟁력 역시 정체 또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대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그로 인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게 됐다면, 더욱 중소기업의 역할과 그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에서는 기획단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학연 공동의 포럼을 결성하여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처간 역할이 달라, 대부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처간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오히려 참가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차세대 성장동력의 구조를 보면 기업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제공되지 않는 한 활발한 중소기업의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선진경제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채택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이러한 면에서는 아직 미완성 단계라 하겠다. 절대 다수의 그리고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간과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훌륭한 국가전략이라 할 수는 없다. 1등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지식경제사회에서 절름발이는 결코 선수가 될 수 없다. 결국 화룡점정(畫龍點睛)의 극적 효과는 중소기업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